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멍 때리자,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다’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다’라는 동사다. 원인이 코로나 19만은 아니다. 나도 모르게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오늘도 새벽 창문을 연다. 벽시계를 보니 5시다. 아직은 밖이 어둡다. 시원한 바람이 좋다. 조식(朝夕)으로 제법 쌀쌀하다. 그 많은 시간, 싸워야 했던 더위가 조금은 멀어진 듯 기분이 상쾌하다. 아침 운동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다. 바로 ‘마스크’다.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던 ‘마스크 쓰기’다. 마스크를 쓰고, 잠시 서서 멍을 때린다. 공간이 너무 조용해서 다시 잠이 올 것 같다. 이처럼 생각이 많지 않을 때, 멍 때리기는 자기관리의 출발점이다. 참, 멍 때리기에 좋은 환경 도우미가 바로 마스크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던 마스크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의 일부가 되었다. 오히려 마스크가 코, 입, 턱 주변에서 만져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다. 이쯤 되면 멀리해서 안 되는 마스크 중독(?)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멍 때리는 시간, 바로 이른 아침 길 위를 자유롭게 걷는 것이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음악을 들으며, 알 수 없는 공간 속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멍 때리기는 최고의



박 여 범

영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조건이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멍 때리기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불편한 이웃이 있다. 물론, 답답해서 그럴 수는 있다.

흰색과 검은색에 얼룩덜룩한 꽃무늬까지 다양한 마스크는 보기에도 좋아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걱정이 없고 로복처럼 움직이는 어그직 베그덕 미련한 친구도

마스크 세계의 표정 관리는 쉽지 않고 그 속에서 나만 즐길 수 있는 확실함은 하나 새로운 무대가 생기고 마음껏 누리 수 있는 공간마다 벌집처럼 촘촘히 미래가 과거가 현재가 이웃 살아

달달한 대추처럼 땀글글글 영글어 가면 울벌레 소리 할주에 맞춰 멍 때리기 게임 ENTER 박여범, 「멍 때리기」 전문

아무리 마스크에 기대어 멍을 때린다고 하여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마스크 착용에 관한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 개인적인 차이도 존재한다. 바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마스크 착용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차라리 미친 척하고 멍 때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멍 때리는 삶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小善大失’이다. 나 하나의 작은 불씨가 세상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다. 무

엇이 전체를 위한 것인지? 생각에 생각의 꼬리를 물어 행동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잘되면 다른 사람도 잘될 수 있다는 서로를 믿는 신뢰가 정말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마스크 없는 세상을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 19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마스크다. 현대화가 불러온 재앙인 대기 오염은 인간의 폐를 쉬어가게 만들고 있다. 전염병은 아직도 많은 약에 의존하며 최소의 사망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멍을 때리라며 여유 있게 행동하는 지성이 필요하다.

멍 때리며,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 아니겠는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서 멀어지는 연습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환한 햇살처럼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나약한 자아로 마음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반성의 시간으로 채워보자.

얇은 귀로 잘못된 정보를 주워 달지 말자. 남의 경험을 참고만 하고 같은 인생은 살려고 노력하지도 말자.

그 방법은 먼 산을 멍 때리고 바라보는 것이 최상이 아닐까?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멍을 때려보자.

사설

코로나에 감염된 전주지검 여직원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날마다 발생하고 있다.전북의 코로나 누적 환자 수가 94명이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환자가 나타나 96명으로 늘더니 다음날 밤 속보가 뜨고 또다시 한 명이 더 늘었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그래서 전북 지역의 누적 확진 환자는 모두 96명이다. 96번 째 확진 환자의 경우는 전국적인 뉴스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전주 지검의 직원이라는 점도 있지만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서울과 인천을 다녀온 이후 발병했다는 이유도 있다.

전주지검 여직원의 코로나 감염 소식은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전주 지검의 직원이라면 방역 수칙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을 터인데, 무슨 불요불급한 불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안타까운 일이다.서울과 인천을 다녀온 차체를 두고 뭐라고 탓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울과 인천이 코로나 때문에 개입한 도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불 일을 미루었어야 했을 것이다. 예전에 대구에서 코로나가 창궐할 때 다들 대구 가기를 꺼려했던 것을 상기했다면 미연에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 터이다.

다시는 환자 발생이 없기를 바랐는데 답답한 일이다. 이처럼 어려운 때는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는 지역은 가지 않는 게 상책이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가운데 행동 반경을 줄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이 많은 탓이다. 다시 강조해 말하거나 혹은 경고는 거리두기 실천이 답이다. 방역 당국이 말하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새로 확진자가 된 이들은 밀접 접촉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밀폐 공간에서는 사람 만남을 조심해야겠다. 특히 가깝게 마주 보며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대화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매번 말했거나 혹은 확진 환자가 된 이들은 감염이 되고 싶어서 된 게 결코 아니다.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서로 마주보지 않는 경우라도 보건자와 가깝게 있으면 감염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거듭 강조해 말하거나 지자체와 보건 당국에서 알려주는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아닐 수 없다.

대도약 의지 뉴딜 일자리로도 나타내야

전북도는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며 여러 번 선언한 바 있다. 도지사의 그같은 발언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그때마다 도지사는 변화도 말했다. 그것은 도민들도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짚어 볼 게 있다. 대도약은 한 두 가지 현안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늘 당부하는 바이지만 전북의 대도약은 많은 일자리로 공감을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을 먹여 살릴기대 주로 농생명산업을 꼽았고 탄소산업을 꼽았다. 그것은 농도 전북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였을 것이고 많은 부가가치를 지닌 블루오션이라 판단했기에 그랬을 터이다. 그래서 지금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전북도는 대도약을 위해 정부의 뉴딜 일자리에도 많은 힘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한다. 정부의 계획이 아무리 거창한 거라해도 이쪽에서 일자리 창출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무용하다.

도민에게 일자리 창출은 최고 가치이다. 그 어느 때고 일자리 관심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다. 일자리 창출이 정말로 있어야 인구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 인구 유입도 있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전북의 뿔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다. 그런데 전북도에게는 스스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만한 자금이 부족하다. 때마침 전북도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뉴딜 사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야겠다. 다시 당부하거나 혹은 전북도는 대도약 의지를 뉴딜 일자리로도 말해야 한다. 전북도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고 여러 번 약속한 바 있다. 도민들은 전북도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다.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은 대도약 의지를 뉴딜 일자리로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포스트잇으로 설치 작품 만드는 지역 예술가들



9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그린스트리트에서 지역 예술가 로버트 호지(가운데)와 데이비드 앤더슨 3세가 #StickTogetherHOU 라는 해시태그의 설치 작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색깔의 포스트잇 수천 장으로 만든 작품에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숨진 필수 근로자들과 사회적 평등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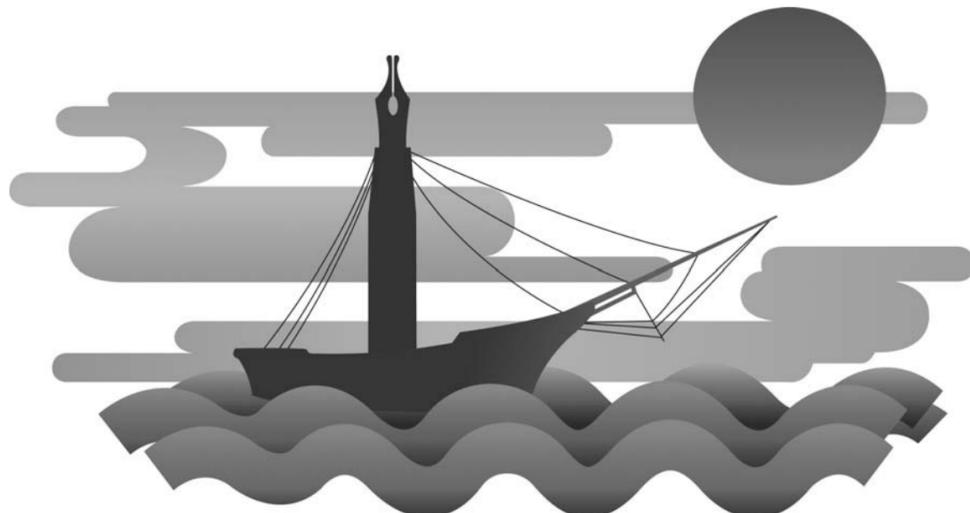
독자제언

‘안전속도 5030’을 아세요?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은 시속 50km,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한편, 차의 성능과 도로환경은 개선되고 있는데,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 불만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왜 제한속도 하향 정책이 필요할까? 이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권고하는 정책으로 유럽 등 47개국에서는 50km 하향으로 교통사망자가 최대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12월 기준 전국 68개 하행구간의 전체 사망자수 감소율이 63.8%로 나타나는 등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제

한속도를 낮출 경우, 차량과 충돌했을 때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시속 60km에선 92.6% 달하지만 50km에선 72.7% 낮아지고 시속 30km에선 중상확률이 15.4%로 대폭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주요 도시에서 시범사업 결과,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 → 50km/h로 낮춰도 예상과 달리 평균 통행속도는 크게 줄지 않고, 소외 시간에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량의 이동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런 정책은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운전자도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속도 5030’이 성공적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보행자를 배려하는 느긋한 양보 운전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제근육신경철서 교통관리계 겸감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